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

/무안교육지원청

### 원예·제빵 등 겨울방학 프로그램 개강

무안교육지원청, 42명 대상 실시

무안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까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나기,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겨울방학은 또래 및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활동들을 계획하여 전문 강사를 초청, 1일 1 집중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 충실에 목적을 두었다. 학

생들은 원예활동, 제빵제과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언어치료와 개별화 교육, 미술치료 등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인화 학부모(현정초등학교)는 "주위로 움츠리기 쉬운 겨울방학 기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알찬 프로그램 때문에 자녀와 함께 신나고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 평택시,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운영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야간과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중 행정복지센터는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읍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24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76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는 7일부터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종이며, 국세와 관련한 제증명 10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 가능하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23곳 적발

인천시, 작년 1299곳 점검 결과

인천시는 지난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 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

으로 대처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0

1월 8일 (화)  
음력 : 12월 3일

수도권 날씨  
-5 ~ 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1/0, 동두천 -9/1, 가평 -10/0, 파주 -11/0, 서울 -5/0, 양평 -9/1, 인천 -5/-1, 수원 -5/-1, 용인 -5/-1, 평택 -8/1, 백령도 -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의 55%

# 전남, 친환경농업 '1번지' 도약

면적 4.3만ha... 전년비 145% ↑  
인증품목 다양화 인센티브 제공  
을 과수·채소 지원비 상향키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4만 3340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가 넘어 명실공히 친환경농업 1번지로서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전체 인증면적 가운데 유기농 상향 인증면적이 1만 1469ha로 전년보다 145% 이상 늘어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결과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남 경지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인증면적에 비해 707ha 늘었다. 전국 인증 면적 점유율 측면에서도 2위인 전라북도(7.5%·5874ha), 3위인 경기도(6.9%·5396ha)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

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이루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분석이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것도 한몫 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경우 품목별로 차등해 ha당 과수 150만 원, 채소 130만 원, 벼 12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과수·채소 품목은 ha당 10만 원씩 상향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5ha에 이르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단가 역시 올해부터는 m<sup>2</sup>당 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상향 지원한다.

벼 이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보성, 담양, 영암에 있

는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시군 농업기술 센터를 활용해 과수·채소 중심의 재배 기술 교육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과수·채소 등 품목 위주로 품목별 광역단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산지 조식을 도·시군·지역 농업이 연계해 조성하고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무농약이 전년보다 2800ha 줄었으나 유기농이 이를 훨씬 넘는 3500ha나 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탄탄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2019년에도 품목 다양화, 산지 조직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친환경농업대상 시군 평가에서 대상 장흥군, 최우수상 진도군, 우수상 신안군, 곡성군을 선정, 오는 29일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재난신고 1년간 53.5만건... 日 683회 출동

전남소방본부, 총 24.9만회 출동  
신고건수 4.9%, 출동 21%로 늘어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화재 등 각종 재난 신고 건수가 53만5000여 건으로 1일 평균 1500여 건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24만 9558회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건수는 하루 평균 683회, 시간당 28회로 나타났다.

119신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4.9% 늘었지만 신고를 받고 실제 소방차가 출동



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

한 것은 21%로 크게 늘었다.

이달승 전남남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모든 119신고에 대한 현장 확

인을 원칙으로 하는 소방본부장의 지휘 방침에 따라 소방력 출동을 요하지 않는 민원 전화에도 가급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쉬워 취약시간대 주민들의 119신고가 많은 편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앞으로도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부르짖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 완도군, 재난알림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완도군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등이 발생할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225개 마을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완도군은 245개의 마을 중 권역별 공모 사업을 통해 21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마을도 연계하여 일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다.

먼저 올해는 1차 년도 사업비 11억 원과 2차 년도에는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마을방송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으로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마을회관에 구축된 옥외 스피커를 통해 소식을 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마을과 떨어진 자연 마을(외딴 마을)에도 무선 주파수를 통하

사업비 18억4500만원 투입  
2020년까지 225곳에 설치

여 방송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마을방송 음영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홍수나 태풍, 지진, 산불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나 대피 안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균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 경기도민 아이디어 30건 정책에 반영

예산 38억 투입... 올 부터 시행

경기도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수렴한 도민 의견이나 아이디어 가운데 30건을 선별, 도 정책에 반영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민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을 주문한 바 있다.

도가 선별한 30건 가운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양성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 앱 서비스 ▲내수면 어선피해 재난 예방지원 등 25건이다. 도는 25건 가운데 14건은 예산 38억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재 타

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과 앱 서비스는 경기도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이용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한 식당이나 병원, 쇼핑몰 등의 화장실, 주차장, 승강기 위치나 개수 등에 대한 정보다. 도는 올해 6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 앱을 개발해 10월경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